

간송 전시로 맺은 인연...뜻 나누며 큰 불사

최완수 선생

“법정 스님하고 인연은 굉장히 깊어요. 1971년도 10월, 처음 전시를 시작할 때부터 오셨어요. 제가 추사 연구를 할 때 번역한 추사집을 보내드리면 스님도 책 보내오시고, 늘 편지 왕래를 하고 서로 찾았지요. 봉은사에 계시는 때 두 번 가 뵈고, 불일암에는 여름·겨울 방학 때, 한 해에 두 번은 꼭 제자들 데리고 가보았어요.” 간송선생 동상 앞, 옛 서책 향이 감도는 담백한 연구실에서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최완수 선생(71)과 마주 앉았다. 한복을 입고, 컴퓨터도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는 선생은 ‘나는 조선시대 생활 그대로 산다’고 말한다. 하얀 모시동옷 차림에 속이 다 들여다보일 만큼 해맑은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자 같다. ‘세상에 이런 어른도 계시구나.’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동자고리 바람으로 손을 맞을 수 없다면서, 두루마기를 입고 오겠다고 하는 선생을 그러면 셔츠 바람으로 찾아온 제가 민망하지 않겠느냐면서 막아섰다.

방학 때면 제자들과 어김없이 불일암을 찾았다는 말씀에, 송광사 수련회에 동참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쭙더니 당신은 불교를 믿어도 계도 받지 않은 사람

1971년부터 편지 왕래하며 교본 불일암 찾아 갖은 농담으로 묵언 깨 송광사와 길상사 불사 맡아 동참

이러며 질질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못 지킬 게를 어떻게 받아요? 안 받고 안 지키는 게 낫지. 받고 안 지키면 약속위반이지요. 그러려면 아예 출가하지 이라고 있었어요. 계에 묶여서 괜히 불편할 일을. 법정 스님을 비롯해 저를 좋아하는 스님들은 그래서 더 좋아하지.”

어느 해 겨울, 선생이 불일암을 찾으니 법정 스님이 삼동결제를 하면서 묵언해 내걸었다. “묵언수행을 한다고 앉아 계시더라도. 그래서 내가 갖은 농담 다 해가지고 실컷 웃기고 묵언을 다 깨뜨려놓고 왔지요. 하하. 그때는 법정 스님이 제자를 받지 않을 텐데 내가 제자를 여럿 거느리고 가서 ‘상좌 두세요. 상좌를 빨리 두셔야 노후가 편안하실 테니까.’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상좌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좌들이 어리지. 그때 그랬는걸. 상좌 하나가 지옥 한 덩어리라고.” 선생에게 속세 인연은 짓지 않아 자식은 없더라도, 자식이나 진배없는 제자들이 30여 명이나 된다. 법정 스님 지옥은 일곱 칸이지만 선생 뒀은 서른 칸이 넘는다고 농을 건넸더니 “그래도 지옥을 짊어지고 가야지. 지옥고를 받아야 극락도 오는 거니까.”라면서 너털웃음을 짓는다. 그 말씀 끝에 “지옥, 내가 먼저 들어 갈 거야.” 했더니 조주 스님이



“나는 조선시대 그대로 산다”는 최완수 선생. 법정 스님과 현호 스님 부탁으로 송광사와 길상사 극락전 불상조성 등 큰 불사를 논의하며 뜻을 같이 했다.

떠올랐다.

“법정 스님하고 상당히 친했는데 강원도로 떠나시고 난 뒤에는 굳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고 들지 않았지요. 쪽쪽 숨었다는데 뭐 하러 찾아오. 그래도 봄·가을 열리는 전시회 때는 꼭 오시고, 서로 부탁할 일이 있을 땐 반드시 찾았지요. 85년 8차 송광사 중창불사 때 법정 스님이 현호 스님을 데리고 이리 오셔서 부탁했어요. 그러나 어찌 각별한 인연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송광사나 길상사 불사는 제가 맡았지요.”

길상사는 1997년 2월 14일 등록하면서 청학 스님이 조대 주지를 맡았다. 그때 법정 스님은 최완수 선생이 불사를 맡아달라고 했다. 청학 스님은 선생에게 산만한 구조물들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선생은 ‘중심 건물이 어디냐?’고 물어 지금 극락전 자리를 중심 법당으로 정했다. “신라 이래로 개인 집을 절로 만들 때, 대체로 아미타불을 모시고 극락전으로 해왔다. 극락왕생을 발원하려는 마음에서 생긴 전통이니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떨까”고 의견을 내어 중심 전각이 대웅전이 아닌 극락전이 되었다. “우리 고유특색 같은데, 고려 중반기 무신란 이후로 아미타불 좌우보처를 경전 가

내용을 동판에 부식시켜서 넣었어요. 그런데 길상사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법정 스님이 그런데 매달리기 싫어하는 분이니까. 종이에 쓰셨다고 해서, 되도록 종이 변화하지 않아야 하니까. 제자들이 만든 종이하고 글을 드렸어요.”

극락전 아미타부처님이 달처럼 은근하고 푸근하다면, 설법전 석가모니부처님은 해처럼 씩씩한 기상이 조어장부다. “극락전 부처님 원형은 보덕사부처님이에요. 제 머릿속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처님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대강 담겨 있지요. 처음 송광사 대웅보전 부처님 조성 부탁을 받고 그 가운데 어느 부처님을 본본(本本)으로 할까? 고민고민하다가, 제가 열 살 때 처음 보았던 보덕사 부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 돌아가자! 마음먹고는 바로 현호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태어나 가장 먼저 친했던 부처님한테 조정을 맞춰야 할 것 같다. 그리고는 한 겨울에 제자들과 현호 스님, 태성불교사장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마음에 결정은 이미 내렸어요. ‘현호 스님 마음에 들면 더 좋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한다.’ 법정 스님이야 이미 경지를 다 넘은 분이니까. 그렇지만 현호 스님이 대단해요. 흔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하더군요.”

불상조성 과정 날일이 적바림 복장

길상사 중심전각을 극락전으로

달 같은 극락전부처, 해 같은 설법전부처

르침대로 관음·세지를 모시지 않고 관음·지장을 모셨어요. 과거·현재·미래를 다 통섭해버린 거지요. 우리겨레는 종합해서 함축하기를 좋아해요. 요 점정리를 해서 단순화시키지요. 그 전통을 따라 길상사 극락전에 아미타 삼존불 모셨어요.”

우리 정서로 보아 시작이 반이라고 무슨 일든 시작하면 바로 되는 줄 아니까. 선생은 그렇게는 못한다. 서두르겠지만 내 마음에 들어야 일을 끝내겠다고 확실히 뜻을 밝혔다. “결국은 내가 한 것이 될 텐데 잘못되고 나서, 일을 서둘러 마쳐서 잘못했다고 해봤자 애기가 안 되니까.” 선생은 부처님 모실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불상 크기가 나올 테니까, 먼저 건물 개조부터 해야 한다면서 답질을 조각조각 불단을 조성할 사람, 후불탱화 그릴 사람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어귀를 지었다.

우리 선조들이 불상을 모실 때 불상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하나하나 적어서 복장에 넣어놨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서 불상연구에 많은 어려움 겪었던 최완수 선생. 송광사 불사하면서 서부터 복장 연구문에 불상 조성 과정이 얹힌 사연을 날일이 적바림해서 넣었다. “불사를 하면서는 그

충남 예산군 가야산(伽倻山) 보덕사(報德寺) 극락전에 독존(獨尊)으로 모셔져 있는 아미타여래불상은 높이가 117센티미터로 고려 명종(1171-1197) 때 조성하고, 조선 영조2년(1726)에 중수한 종으로 만들어진 불상이다. “길상사 극락전 불사 시작할 때도 현호 스님이랑 보덕사를 다시 갔어요. 가서 보니 어떻게 될 잘못 했는지 부처님 손가락 하나가 부러져 무었으로 부쳐놨더라고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보완불사를 하려고 바로 제자들과 태성불교사 사람을 내려오게 했어요. 불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직접 친견하고 만지면서 도면을 그리고, 조각을 할 때 감수도 했으니까. 송광사 부처님보다 길상사 부처님이 더 보덕사 부처님에게 가까울 수밖에요.”

같은 해, 청학 스님이 긴 방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당으로 써야겠다고 했다. 선생은 무설전으로 할지 설법전으로 할지, 법정 스님과 의논하라고 했다. “법정 스님이 무설전은 싫으셨던 모양이야. 수 쓰는 거니까. 그냥 평범하게 설법전으로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법을 설하는 곳 이니까. 석가모니부처님 단독상을 모시자고 했어요.” 청학 스님은 마침 시주자가 나타났으면서 시주돈에 맞춰 순금불상을 예술품으로 잘 만들어서 봉안을 하자고 했다. 선생은 그도 좋지만 너무 작으면 집 어가기 쉬우니 사람 하나 도둑놈 만들기 딱 좋지 않겠느냐면서 널따란 방에 조그만 불상 하나 놓였을 때 구경미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선생이라도 평면면, 작은 불상이라도 높이 모실 수는 있지만, 평면이라 저 뒤에서는 일어서서도 겨우 보일까말까 하지 않겠느냐? 법정 스님하고 의논을 하라고 했다. “설

천년 술향기와 함께하는 고운사 여름수련회 (어린이, 중·고생, 일반)

www.gounsa.net

천년 소나무 향이 가득한 청정도량 고운사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나는 여름 고운사로 가자 어린이 수련회



- 일 시 : 2012년 7월 27일 ~ 29일 (2박 3일)
- 참가비 : 오만원
- 대 상 : 초등학생 누구나

What is the Buddha? 중·고생 영어수련회



- 일 시 : 2012년 8월 3일~5일 (2박 3일)
- 참가비 : 칠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여벌 옷, 운동화 및 개인용품

천년 술향기와 함께하는 일반 여름 수련회



- 일 시 : 1차 수련회 (8월 6일~8일) 2차 수련회 (8월 9일~11일) 3차 수련회 (8월 12일~14일)
- 참가비 : 일십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개인용품

| 장 소 : 고운사 선체현관
| 참가신청 : 고운사 홈페이지, 이메일- gounsa44@hanmail.net
| 참가문의 : 고운사 중무소 054)833-6933, 833-2324

☎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정서치유를 위한 승마훈련과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훈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41회 (21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1.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2. 승마 정서치유와 호연지기
3.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 연 제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8월 25일 (5주간)

※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회비 : 1주 - 49만원 / 2주 - 90만원 / 3주 - 110만원 / 4주 - 13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비물 : 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운동복·운동화·모자·개인 컵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환불규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 교육프로그램 : 1. 건강회복·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공수련, 승마교육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뒷발가꾸기
4. 정서치유 : 명상테라피,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테라피, 무용테라피, 전통음악테라피(판소리, 전통악기), 생체체형치유
5. 교양수업 :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1500년 전통사찰·연인원 4만명(외국인 템플스테이 6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화랑사관학교



반세기동안 간송 미술관에 뿌리를 내리고 겨레 미술 연구에 온 정열을 쏟은 최완수 선생은 신수대장경 보려고 간송미술관에 갔다가 겸재를 만났다.

득 당했지. 얼마 있다가 와서 선생님 뜻대로 하시래요. 그래서 이곳은 법을 설하는 설법전이니가 강인하고 장대한 느낌을 가진 부처님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국립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황복사 삼층탑에서 나온 순금불을 원형으로 삼았어요.”

극락전 부처님은 대안반도 백제불상이 본본인데, 설법전 부처님은 신라불상을 본본으로 삼았으니 다를 수밖에 없다.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는 남북조 시대, 육조시대 불상양식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다가, 당나라 때로 오면서부터 불상양식이 확 바뀐다. 그런 까닭에 처음 당나라 양식을 받아들인 황복사 불상은 풍후하고 당당하다. “후불탱화 걸어보아 멀리선 보이지도 않을 테니 단독상으로 모시고, 광배를 했어요. 단이 낮으니까, 뒤에서는 광배 끝이라도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2004년 지장전을 지을 때도 아무래도 선생님이 해주셔야 하겠다면서 선생을 찾은 당시 주지 덕조 스님에게 “법정 스님 뜻이라면 마땅히 내가 해드려야지.”라고 선뜻 대답을 했다. 어떤 규모로 짓는지, 향이 어떤지는 알아야 그에 맞는 불상을 조성할 수 있기에 현장 나들이를 여러 번 했다. 그때마다 법정 스님이 동석했다. 선생은 속으로 ‘왜 하필 지장전이 누? 그 자리가 중심 자리인데 지으려면 대웅전을 짓든지 해야지. 그러다 ‘아! 금교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에 입을 닫았다.

“하하 또 고민이 시작이지. 흔히 명부전이라고 해 놓고 시왕상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법정 스님이나 나나 모두 도깨비굴이라고 맞지 않아 하거든. 내가 법정 스님 의도를 알아차리고 ‘시왕상을 모실 거냐?’ 물었더니, 스님이 ‘그 도깨비굴 귀신들 다 끌어다가 뭐할 거냐’고 그러셔서 삼존상만 모시기로 결정하고는 지장보살 연구를 한참 했다. 우리나라 지장보살이 독특해요. 그냥 맨머리 승두상과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이 있는데, 우리는 고려시대 이래로 두건 쓴 피모지장(被冒地藏)이 주로 신앙 대상이 되어 불화로 그려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각상으로 남겨진 것은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기가 고장 선

왜 하필 지장전이누? 대웅전 지어야지 ‘명부전을 지장전으로’ 송광사가 처음 스님이 바람이면, 선생은 뿌리 깊은 나무

운사 도술암에 있더라 말이에요.”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천장(天藏), 지장(地藏), 인장(人藏) 삼장(三藏)인데, 이 지장보살 세 분을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곳이 선운사다. 모두 두건을 쓴 선운사 지장보살 가운데 도술암 지장보살상이 가장 좋은 줄 이미 알고 있었던 선생은 그 불상을 본본으로 하자고 마음을 먹고 일행과 함께 내려갔다.

“한 번 보면 흠결이 없어보여도 자세히 살펴면 파탄된 게 많아요. 기본틀만 두고 모두 바로 잡았어요. 법고창신(法古創新)이에요. 창신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설 까닭이 뭐겠어요?” 그 뒤 법정 스님이 만나자는 기별이 와서 가보니 전각 이름을 정하는 자리였다. 당신이 먼저 뭐라고 입을 열면 생각을 접을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선생에게 법정 스님이 명부전은 귀신이 사는 집 같으니 지장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지요. 지장전이란 명호를 일반화시킨 건 송광사부터예요. 그 전에 모두 명부전이라고 했지. 가끔 지장전이라는 데도 있었겠지만 유행하지는 않았어요. 지장보살을 모셨으니 지장전이라고 해야 한다고 내가 우겼죠.”

선생에게선 조선은 당파싸움만 하다 망한 형편없는 문화를 가졌다는 조선정체설이,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되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불상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장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최완수 선생, 신수대장경을 보려고 간송미술관을 찾다가 그만, 발이 묶였다. “겸재를 만난 거죠.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땐 조선사를 호감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미친놈 소릴 들었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겸재로 조선 문화가 지닌 저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선 전기에는 소를 그려도 물소를 그리고, 사람들도 죄 중국옷을 입혔어요. 그러나 겸재는 우리 갓과 도포를 입은 선비, 우리 승복을 입은 승려, 우리 저고리를 입은 여인들을 그렸을 뿐 아니라, 중국 산하가 아닌 금강산과 인왕산을 그리지요. 겸재 이후 김홍도와 신윤복 조선풍속화가 출현합니다.” 1966년 일이다.

선생이 간송미술관에 뿌리를 내리고 이 겨레미술 연구에 온 힘을 쏟은 지도 어느덧 반세기. 이곳에 들어온 뒤로 한 번도 밖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뒤에 취하면 그것밖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거든. 예전 선사들도 절문에 한 번 들어서면 평생 문밖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출가! 늘 버리고 떠난 법정 스님이 선선한 바람이라면, 평생 한 곳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선생은 뿌리 깊은 나무다. 전시회도 한 해 두 번밖에 열지 않으면서 연구한 바탕에 뭐가 있었을까? “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살라고 하면 아무도 못살지요.” 앞으로도 할 연구가 많을까? “그러므로, 우리 역사 연구가 여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대 사학이라는 게 식민사관에서 출발했으니까. 죄 바뀌어야 하는데 저는 바꾸기 시작하는 틀, 겨우 주춧돌만 하나 놓았을 뿐이지요. 이제 후학들이 사방에 주춧돌을 놓고 궁궐내부를 지어나가야 하죠. 내가 시의적절한 때 여기 와서 뿌리를 내렸던 거죠. 조선이 망가지는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하려했었다면, 간송 같은 일밖에 못하죠. 간송 선생이 해놓으신 일을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리하기 시작한 거지요.” 선선히 웃는 선생 얼굴에서 서산 백제마애불이 보인다. 씨도둑은 못한다더니.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나 팔꽃

칠월이 좋다. 옛 동무를 만나는 달이기 때문이다. 기약 없이 헤어졌지만 꼭 그 달이 되면 만날 수 있는 벗. 나팔꽃이다.

기쁜소식이란 꽃말을 지니고 있는 나팔꽃은 사권지가 오래 되었다. 아마 호연지기를 기르려고 산꼭대기에 오르던 소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아침의 일이다. 예전과 같이 산 정상에 올랐다. 지평선 너머의 세상을 그려보기도 하고 발성 연습도 하였다. 물결을 보니 신발이나 바지가랭이는 아침이슬에 채여 물기가 흥건하였다.

호기를 부려 주변을 보니 나팔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다. 동행하는 동무가 없어도 그냥 피어 있었다. 저 꽃에서는 무슨 향기가 날까 궁금궁이 발동하여 살며시 코를 내밀고 흠뻑 숨을 들이 쉬는 순간 짝짝 놀라고 말았다. 기대했던 향기가 호들갑을 떨며 어디로 뺨지 모르겠고 꽃잎이 콧마루와 양 콧방울에 찰싹 달라붙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의 상황은 마치 어느 거인이 나의 전신을 물 묻은 손가락 하나쯤으로 튕겨 어느 구석으로 날아 간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아니면 오늘날 기증기의 한 야가리에 들어 올려 허공에 띄워 놓은 기분이 었다라고나 할까. 하여간 두려움이나 경이로움을 체험했던 것만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여름에 분명히 달라진 한 가지를 발견하였다. 나팔꽃은 해가 거듭된다해서 나이가 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옛 모습 그대로 옛된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인간은 가는 세월을 불들려 하고 이마에 훈장이 늘어가고 눈가의 주름이 참빛살 마냥 촘촘히 늘어감을 한스러워한다. 나이더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 신비를 알아냈다. 출생길에는 물목이 있다. 여러 물목이 있는데 유독 비탈진 곳에 놓인 물목은 물을 받아 저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공간 또한 그렇다. 그런데도 군말 한 마디 없이 넉넉이 진군하고 있다. 세상을 점령하겠다는 용기를 낸 듯. 지지대 하나 의탁할 곳 없어도 좋다 싫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누구 때문에, 때문에 ... 때문에 위로를 삼고 대열에서 처진 자신을 구원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노라면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물동싸움에 흠뻑 취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유희가 신기하다는 듯 흡족한 웃음을 띠고 바라보고 있다.

나팔꽃은 누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지 궁금궁기도 하다. 행인의 발 밑에 밟혀도 문드러지지 않고 꼬부랑 할머니의 나들이

마냥 힘겹게 발을 내딛고 있는 듯도 하다. 저 나팔꽃은 묘손을 안다. 인내도 안다. 그 뿐이라. 정진의 묘미는 일찍이 터득한 듯하다.

소년시절에는 세상을 품에 안고자 하였다. 오직 나의 품에. 그리고 아침 햇살에 미래를 기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세상을 모두 안으면 무거워 숨 쉬기조차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내가 아닌 상대가 안고 누리기도 허용한다. 어명의 찬란함보다 석양의 노을이 아름다운 줄도 안다. 지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린시절 같이 기를 쓰고 산에 오르지 않아도 해도 무방하다. 주변에서 새 벗을 언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벗은 책이다. 청나라에 고천리(顧千里)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한 여름에 벌거벗고 책을 읽는 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다. 한편 읽고 싶지 않으면 사철 독서하지 않는 방식도 따를만하다 하였다.

나이테가 늘지 않는 나팔꽃 주름이 늘어가는 모습 한스려 옛 것에 그리움을 가져보자

봄에 독서한 봄 뜻에 거슬린다 여름은 그저 잠으로만 보내려 겨울이 저물어 조금해지거든 잠시 기다리라, 다시 올 봄을

고천리의 습관에서 옛 볼 수 있는 진정한 독서법이란 무엇일까. 그 답은 간단하다. 마음이 나카면 책을 들어 읽는다는 것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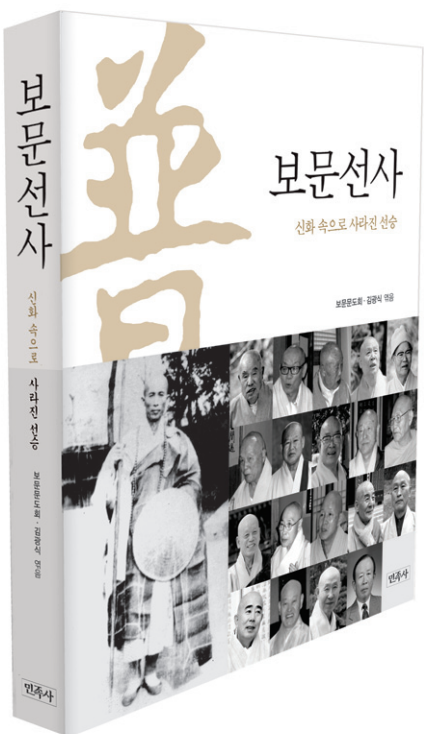
어제는 책장을 넘기다 어쩌나 잠이 쏟아지던지, 주체할 수 없던 걸. 정신을 가다듬으면 어느 곁에 엮툼 마냥 오수는 찾아들고, 이런 경우를 점령하겠다는 용기를 낸 듯. 지지대 하나 의탁할 곳 없어도 좋다 싫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누구 때문에, 때문에 ... 때문에 위로를 삼고 대열에서 처진 자신을 구원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바람이 속삭이며 지나 간 곳에는 아린(芽鱗) 조각도 벗겨주고 녹색의 향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가르침이 자연의 섭리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소년의 발길이 머물던 곳에 피었던 나팔꽃은 이제 군락을 이루었을 것만 같다. 난방시설이 바뀐 세상이다 보니 어느 쉼나무꾼의 발길도 닿지 않았을 터이니 더욱 그렇다. 옛 벗을 만나려 산에 올라볼까. 옛 것은 항상 그리움을 안고 있으니까.

“보문스님이 오래 사셨다면 종정도 하셨고, 한국불교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초우륵스님)

갈빗대를 잘라내는 대수술에도 화두만을 붙들었던 스님, 보문스님의 전설이 밝혀진다



진정한 간화선승! 성철스님과 봉암사결사를 이끈 주인공!! 선방의 수좌 스님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큰스님, 보문선사

“성철스님은 큰스님이기는 해도 아직 경지가 못 떨어진 사람이 아니며, 내가 보기엔 보문스님이 진짜 선승이지. 그런 스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스님은 말을 하지 않고 술선수법하는 스님이에요.” 성수륵스님(전 해인사 주지, 전 조계종 총무원장)

보문선사

신화 속으로 사라진 선승

보문문도회 · 김광식 역음 | 376쪽 | 정가 28,000원 | 양장(175×225mm)

민족사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딩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www.minjoksa.org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선화와 악담이 부처와 호랑이보다 더하신 분 바로 경허선사이시다. 들어가셨으니 어느 곳을 향해 떠나셨는가 술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반공월면

善惡過虎佛 是鏡虛禪師 遷化向甚麼處去 酒醉花面臥



경허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글·일지 | 352쪽 | 13,000원 스포츠양장(150×208mm)

민족사